

영광군 958억 규모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품권 발행 970억원까지 확대 영세 음식점·소상공인 지원 늘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유예

영광군이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섰다. 영광군은 군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군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총 63개 사업에 958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970억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세 음식점 60곳에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1.5%에서 2%로 늘린다. 관광 여건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 18개 여행 업체에 홍보마케팅비 3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수축산업 지원책으로 벼 재배 농가에 ha당 111만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급하고, 사육두수 60마리 이하 소규모 한우 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 50%를 긴급 지원한다. 임대 농기계 50%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시중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원예작물 우



장세일(가운데) 영광군수가 지난 23일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량 묘를 공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 지원 단가를 200원 인상하고, 월 10만원씩 30만원의 부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22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영광군은 17년 만에 단행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시기를 내년 1월에서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앞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과 변경된 봉투 디자인을 공개했지만 최근 악화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가격 인상 시기 유예를 빠르게 결정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kwangju.co.kr

무안군, 국산품종 1호 '레몬' 첫 수확

무안군이 시범사업 농가에서 자란 레몬의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무안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 참여한 운남면의 김천중 농업인이 960㎡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레몬 국산품종 1호인 '레몬' 품종 250주에서 생산에 성공했다.

무안군 레몬의 예상 수확량은 1톤 이상으로 온라인과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될 예정이다.

무안 레몬은 수입산과 달리 껍질에 왁스코팅 및 화학작업을 거치지 않고 수확한 상태 그대로 유통돼 흐르는 물에 먼지나 이물질만 깨끗이 씻어서



김산(왼쪽) 무안군수가 레몬 재배 농가를 찾아 레몬 수확 현장을 살피고 있다. <무안군 제공>

샐러드 드레싱, 레몬청, 레몬수 등 각종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재광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소득작목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신안군 임산부 공무원 '주 4일' 출근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신안군은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주 4일 출근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안군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40주의 임산기간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모성보호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31일 공표될 예정이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통해 기존 임신검진휴가(10일)와 모성보호휴가(30일)를 연계해 임신기간(40주) 동안 매주 1일의 특별휴가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졌다.

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지원했던 장기재직휴가를 3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도 5일을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 확대 조례 개정, 임산부 전용 휴게실·주차장 설치, 유연근무 및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결혼·출산·육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52억 투입 잔량벼 매입...쌀값 안정·농업소득 보전

40kg당 6만1000원 이상 가격 지역농협과 협업 통해 수매

해남군은 쌀값 안정화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공공비축미 수매분을 제외한 잔량벼를 지역농협과 협업을 통해 매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에서 2000원, 농협에서 2000~4000원을 매칭해 벼 40kg당 6만1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수매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산 해남군의 벼 생산량은 40kg 기준 317만1100여 가마를 수확했으며, 공공비축미곡으로 54만6000여 가마를 수매했다. 이 중 공공비축미와 자가소비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량벼를 수매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심화하고 있는 쌀가격 하락으로 인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의회, 지역조합협의회, 해남군 농민회, 해남군 이장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 24일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성욱 해남군의회, 이무진 농민회장, 추윤석 이장단장, 김경재 지역농협운영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도 가졌다. 협약식에서는 쌀값 안정과 농



지난 24일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성욱 해남군의회, 이무진 농민회장, 추윤석 이장단장, 김경재 지역농협 운영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값 안정과 농민 소득보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해남군 제공>

민 소득보전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일정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쌀값 하락으로 전국 최대 규모 벼 생산지역인 해남 농업인들의 소득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박지원 국회의원, 지역단체 등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길은푸르미마을 '농촌 살아보기 경진대회' 최우수상

진도군은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길은푸르미마을'이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일 자리를 얻어 장기간 생활을 직접 하면서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운영한 귀농·귀촌형 120개 마을 중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5개(전남, 충북, 경북2, 경남) 마을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길은푸르미마을' (대표 이재병)은 6개월간 12가구 16명의 참가자에게 조도와 판매도 등의 섬 체험을 비롯해 ▲영농-어촌 ▲민

속문화(북놀이, 아리랑, 민요) ▲진도 홍주 만들기 ▲울금을 활용한 특산물 요리 ▲봉사용동 ▲지역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 진도지역의 특성을 살린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참가자들이 진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일자리를 알선하고 '귀농인의 집'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세심한 관리로 올해 참가자 중 7명이 진도로 전입했다.

김희수 진도군은 "이번 수상은 진도만의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등 진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